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과 학업열의, 또래애착의 동시효과*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cademic Helplessness During Adolescence and the Concurrent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and Peer Attachment

1차원고접수: 2025.04.09. 수정원고접수: 2025.05.28. 최종게재결정: 2025.06.20.

하아영¹ · 정선영² · 허인화³ ·조한익⁴^{1,2,3}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⁴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Ha, Ayeong¹Jeong, Seonyeong²Heo, Inhwa³Cho, Hanik⁴^{1,2,3,4}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과 더불어 학업열의,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 1패널 1차(중1) ~ 6차(고3) 2,590명 자료이다. 연구 결과 중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은 선형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학업열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은 낮아지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서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의 부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학업 무기력, 발달양상, 학업열의, 또래애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cademic helplessness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and peer attachment.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specifically the first through sixth waves of the first-year middle school panel, comprising 2,590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helplessness followed a quadratic pattern, increasing linearly and gradually decreasing.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on the longitudinal change of academic helplessness during adolescence showed that higher levels of academic engagement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academic helplessness, although this effect diminished over time. Also, the study showed that higher peer attachment initially correlated with increased academic helplessness, which then decreased later 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highlights a pattern of academic helplessness during adolescence that initially increase and then decrease. Additionally, it confirms that both academic engagement and peer attachment can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 helplessness.

Keywords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developmental trajectories, academic engagement, peer attach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느끼지 못해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얼굴로 수업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학업 무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학업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학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이명진, 봉미미, 2013;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 이 연구는 제 13회 KCYPs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조한익 (Cho, Hanik)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h1652@gn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학업 무기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낮아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학습 활동에도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박병기 등, 2015; 이은주, 2024; Ghasemi & Karimi, 2021). 이러한 상태는 학업성취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여태철, 임효진, 황매향, 2017; Nurmi, Aunola, Salmela-Aro, & Lindroos, 2003).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부정적 경험의 반복으로 인해 학업 무기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이명진, 봉미미, 2013). 따라서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학업 무기력의 심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권미나, 이진숙, 2022; 김진철, 2023), 이전 시점의 학업 무기력은 이후 시점의 학업 무기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연경, 노연경, 2023; 이해미, 김유미, 2022). 이러한 경향은 학업 무기력의 잠재집단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전이될 때 학업 무기력의 하집단에서 평균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으며(하아영, 조한익, 2021), 중학교 시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무기력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연경, 송주연, 우연경, 2022). 이러한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업 무기력이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은 교육과정의 난이도 심화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서 학업 무기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Barber & Olsen, 2004; Gazelle & Druhen, 2009; Shell, Gazelle, & Faldowski, 2014).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업 무기력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업 무기력은 중학교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김은영, 임신일, 2023), 일부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무기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나(김정아, 2023), 이차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았음에도 간명성을 이유로 선형모형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권현주의 연구(2023)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무기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차함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박혜성, 김성연, 2024).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진학의 압박이 극대화되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의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기 전반에서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발달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 무기력이 심화되고, 그 상태에 고착되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연구들(이명진, 봉미미, 2013; Akca, 2011)과 관련된다.

그동안 학업 무기력과 관련한 연구는 그릿(권미나, 이진숙, 2022; 윤안순, 2024; 정혜원, 장은아, 2023), 학업 성취도(임신일, 방상옥, 2022; 하아영, 조한익, 2021), 부모의 양육태도(김지혜, 2022; 성경주, 김석범, 2024), 교사와의 관계(정세빈, 정혜원, 2023) 등 개인, 가정 및 학교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업 무기력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맥락 특수적인 문제로 학생의 학업열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자영, 이상민, 2012;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또한, 정문주 등의 연구(2016)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정과 학교와 같은 외부 요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또래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 학업 무기력의 보호 요인으로 나타난 학업열의와(박지현, 2022; 이정민, 고은지, 2017)와 또래애착(권미나, 이진숙, 2022; 노연경 등, 2022)의 시점별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효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학업 무기력의 발달경로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몰입, 자신감을 가진 상태로, 학습 과정에서 영감과 가치, 의미를 느끼며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을 포함한다(전향신, 박분희, 2020; 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이자영과 이상민(201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헌신, 활기, 몰두, 효능감을 포함한 학업열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는데,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는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4; 김정아, 2023; 이시혜, 하문선, 2021). 학업열의와 학업 무기력의 연구들(김정아, 2023; Fredricks et al., 2004; Wang & Eccles, 2012)을 보면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고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촉진되기 때문에 학업 무기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는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노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학업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은 학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비교적 낮은 학생은 소극적이어서 학업성취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유선옥, 박혜영, 2016; Stoeber, Childs, Hayward, & Feast, 2011). 학업열의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학업 무기력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은 더 높아지고, 학업열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김정아, 2023).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학업 무기력의 각 시점에 학업열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효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관련한 관계적 요인인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을 낮출 것으로 본다. 청소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또래와 함께 학습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래와 함께 학습하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박성옥, 신귀순, 고영숙, 2004; 정옥신, 이재용, 2017; Pincus & Ansell, 2013). 또한, 청소년들은 긍

정적인 또래 관계 속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이정선, 이형실, 2012; Song, Bong, Lee, & Kim, 2015), 긍정 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 현은민, 2018; Bukowski, Motzoi, & Meyer, 2009; Ryan, 2001). 또래애착과 학업 무기력의 연구들(노언경 등, 2022; Raufelder & Kulakow, 2021)을 보면 또래애착은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나와 이진숙의 연구(2022)에서도 또래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높아지며 변화율에서도 학업 무기력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또래애착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무기력을 낮추기 때문으로 본다(염혜선, 이은주, 2015). 한세영, 최혜선, 모인경과 손은혜의 연구(2024)에서도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볼 때 청소년 시기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업 무기력의 시점별로 또래애착의 영향을 동시효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과 더불어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이 시점별로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효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역할을 살펴보고, 학년에 적합한 학업열의 증진 및 또래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개입 시기 및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에 대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영향은 어떠한가?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발달양상, 학업열의 및 또래애착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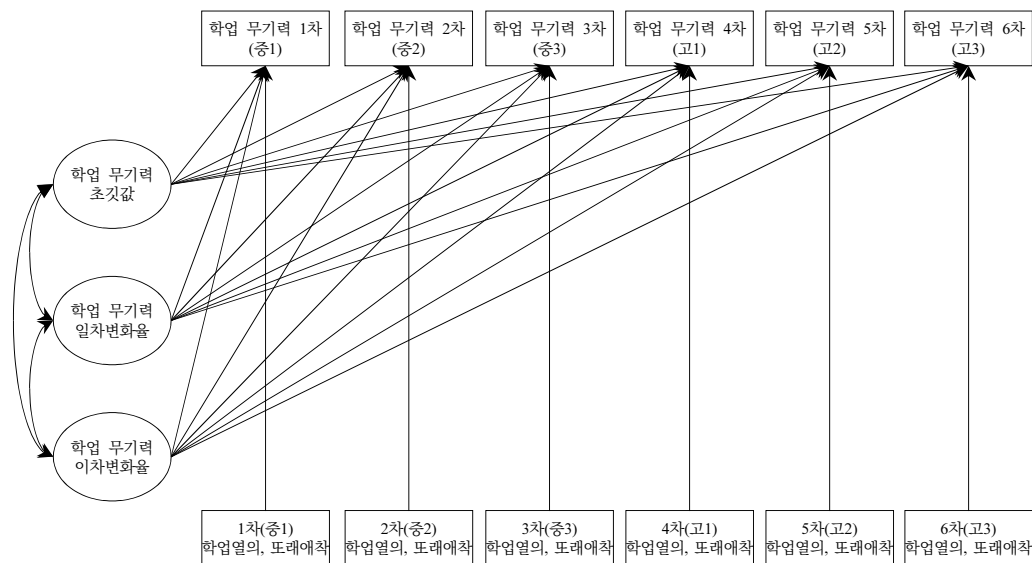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중1 패널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1 패널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해 전국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추출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남학생은 1,405명, 여학생은 1,1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발달양상과 더불어 학업 무기력에 대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동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차(중1) ~ 6차(고3)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업 무기력

학업 무기력 척도는 박병기 등(2015)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4요인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 통제신념 결여는 ‘실력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 학습동기 결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 4문항,

긍정정서 결여는 ‘수업을 듣거나 모둠활동을 하면서 유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등 4문항, 능동수행 결여는 ‘스스로 알아서 학습계획을 짜본 적이 없다’ 등 4문항으로,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 무기력 척도의 1차(중1) ~ 6차(고3)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통제신념 결여 .81 ~ .87, 학습동기 결여 .81 ~ .91, 긍정정서 결여 .70 ~ .76, 능동수행 결여 .79 ~ .83로 나타났으며, 학업 무기력 척도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1 ~ .92로 나타났다.

2)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이자영과 이상민(2012)의 학업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열의 척도에서 헌신은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 활기는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등 4문항이다. 효능감은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등 4문항이고, 몰두는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등 4문항으로 전체 16문항 척도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 무기력 척도의 1차(중1) ~ 6차(고3)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헌신 .78 ~ .84, 활기 .84 ~ .90, 효능감 .81 ~ .91, 몰두 .77 ~ .83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척도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0 ~ .93으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또래애착 척도는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긍정적 또래관계는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등 8 문항이며, 부정적 또래관계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등 5문항으로 전체 13문항 척도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 문항을 모두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1차(중1) ~ 6차(고3)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83 ~ .8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열의, 또래애착의 동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발달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모형화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Grimm, Ram, & Estabrook, 2016; Little, 2013).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 무기력이 학교급의 전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권현주, 2023; 박혜성, 김성연, 2024)를 고려하여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Wang & Wang, 2020). 선형모형에서 초

깃값의 시간벡터는 [1, 1, 1, 1, 1, 1], 선형변화율의 벡터는 [0, 1, 2, 3, 4, 5]로 설정하였으며, 이차함수모형에서 초깃값 벡터는 [1, 1, 1, 1, 1, 1], 선형변화율 벡터는 [0, 1, 2, 3, 4, 5], 이차변화율 벡터는 [0, 1, 4, 9, 16, 25]로 설정하였다. 분할함수모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점을 구분하고 초깃값 벡터는 [1, 1, 1, 1, 1, 1], 중학교 시기 변화율 벡터는 [0, 1, 2, 3, 3, 3], 고등학교 시기 변화율 벡터는 [0, 0, 0, 0, 1, 2]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결측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SPSS 3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학업 무기력의 잠재성장모형과 동시효과분석은 AMOS 3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검증: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

1)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 학업열의 및 또래애착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 변수의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시점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업 무기력은 .19($p < .01$) ~ .50($p < .0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 .21($p < .01$) ~ .48($p < .01$), 또래애착 .17($p < .01$) ~ .50($p < .01$)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시기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학업 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상관은 -.63($p < .01$) ~ -.15($p < .01$)로 나타나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열의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업 무기력과 또래애착의 상관은 -.45($p < .01$) ~ -.08($p < .01$)로 나타나 학업 무기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또래애착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상관은 .05($p < .05$) ~ .27($p < .01$)로 나타나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일수록 또래애착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 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 = 2,590)

		학업 무기력						학업열의						도래애착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업 무기력	중1	1.00																	
	중2	.42**	1.00																
	중3	.36**	.45**	1.00															
	고1	.26**	.37**	.40**	1.000														
	고2	.19**	.26**	.29**	.39**	1.00													
	고3	.20**	.23**	.28**	.34**	.50**	1.00												
학업 열의	중1	-.63**	-.34**	-.30**	-.23**	-.15**	-.18**	1.00											
	중2	-.37**	-.49**	-.35**	-.28**	-.17**	-.24**	.47**	1.00										
	중3	-.30**	-.34**	-.48**	-.31**	-.27**	-.25**	.37**	.48**	1.00									
	고1	-.24**	-.26**	-.32**	-.44**	-.27**	-.31**	.30**	.38**	.48**	1.00								
	고2	-.20**	-.22**	-.26**	-.30**	-.33**	-.29**	.23**	.32**	.42**	.47**	1.00							
	고3	-.18**	-.24**	-.27**	-.30**	-.29**	-.34**	.21**	.26**	.38**	.43**	.48**	1.00						
도래 애착	중1	-.41**	-.23**	-.21**	-.14**	-.16**	-.14**	.27**	.18**	.16**	.13**	.13**	.12**	1.00					
	중2	-.23**	-.45**	-.26**	-.22**	-.20**	-.14**	.17**	.23**	.17**	.12**	.15**	.15**	.37**	1.00				
	중3	-.21**	-.21**	-.41**	-.14**	-.18**	-.18**	.14**	.15**	.14**	.13**	.13**	.14**	.30**	.40**	1.00			
	고1	-.11**	-.20**	-.19**	-.36**	-.18**	-.17**	.05**	.10**	.08**	.17**	.14**	.13**	.18**	.32**	.39**	1.00		
	고2	-.11**	-.16**	-.15**	-.19**	-.40**	-.30**	.07**	.07**	.09**	.12**	.19**	.17**	.20**	.27**	.33**	.36**	1.00	
	고3	-.08**	-.17**	-.11**	-.16**	-.25**	-.31**	.05*	.06**	.09**	.14**	.15**	.25**	.17**	.22**	.27**	.29**	.50**	1.00
평균		1.88	1.96	1.96	1.96	2.04	1.99	2.47	2.46	2.39	2.39	2.40	2.43	3.12	3.10	3.10	3.12	3.06	3.01
표준편차		.53	.51	.51	.48	.49	.47	.55	.51	.53	.49	.47	.45	.43	.42	.38	.41	.40	.39
왜도		.28	.07	.29	.10	.19	.09	.05	-.11	.01	.04	-.03	-.09	-.09	.03	-.03	-.11	.21	.15
첨도		.01	-.26	.25	-.18	.18	-.03	.31	.45	.14	.40	.67	.59	.29	-.24	.25	.05	-.08	-.25

* $p < .05$. ** $p < .01$.

표 2.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608.75	19	.000	.79	.77	.11(.10 ~ .12)
선형모형	182.51	16	.000	.94	.92	.06(.06 ~ .07)
이차함수모형	82.14	12	.000	.98	.96	.05(.03 ~ .06)
분할함수모형	105.94	12	.000	.94	.97	.06(.05 ~ .0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 학업열의 및 도래애착이 정규분포곡선의 가정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왜도의 범위는 -.11 ~ .29, 첨도의 범위는 -.26 ~ .67로 나타나, 정규분포 곡선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Hancock & Mueller, 2006).

2)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 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을 어떠한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

형변화모형, 이차함수모형 및 분할함수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에 대해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모형 및 분할함수모형으로 비교한 결과 이차함수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chi^2 = 82.14$, $p < .01$, CFI = .98, TLI = .96, RMSEA = .05), 다음으로는 분할함수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chi^2 = 105.94$, $p < .01$, CFI = .94, TLI = .97, RMSEA = .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차함수모형과 분할함수모형의 평균, 분산 및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적합도 비교에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난 이차함수모형과 분할함수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차함수모형의 초깃값 평균은 $1.90(p < .01)$, 선형변화율은 $.06(p < .01)$, 이차변화율은 $-.01(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할함수모형에서 초깃값의 평균은 $1.91(p < .01)$, 중학교 시기 변화율은 $.03(p < .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01(p > .0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 기울기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할함수모형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차함수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차함수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양상을 초깃값과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의 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먼저,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과 선형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학업 무

기력의 선형기울기는 완만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초깃값과 이차변화율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의 감소 기울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 학업 무기력의 선형기울기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의 이차변화율의 감소기울기는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학업열의와 또래애탁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서 학업열의와 또래관계의 동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업 무기력의 이차함수모형에서 중1(1차) ~ 고3(6차)의 학업열의와 또래관계 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121.68(df = 108, p < .01)$ 로 나타났으나, CFI = .93, RMSEA = .06(95% CI: .05 ~ .06)으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서 학업열의와 또래관계의 동시효과를 분

표 3. 이차함수모형과 분할함수모형의 평균과 분산

	이차함수모형					분할함수모형				
	평균	분산	상관			평균	분산	상관		
			I	S	SQ			I	S ₁	S ₂
초깃값(I)	1.90**	.15**	1.00			초깃값(I)	1.91**	.14**	1.00	
선형변화율(S)	.06*	.03**	-.42**	1.00		중학교 변화율(S ₁)	.03**	.01**	-.53**	1.00
이차변화율(SQ)	-.01*	.01**	-.50**	.34**	1.00	고등학교 변화율(S ₂)	.01	.03**	-.23**	-.05** 1.0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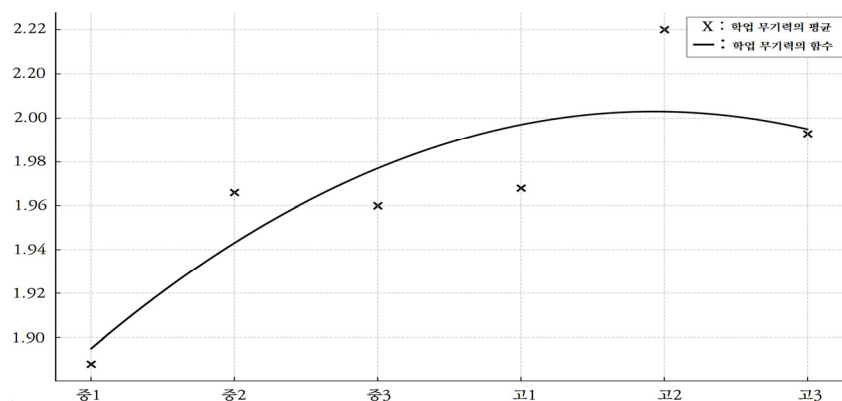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양상

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업열의는 학업 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beta = -.55$, $p < .01$, 2차 $\beta = -.39$, $p < .01$, 3차 $\beta = -.37$, $p < .01$, 4차 $\beta = -.34$, $p < .01$, 5차 $\beta = -.20$, $p < .01$, 6차 $\beta = -.22$, $p < .01$).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 또한 학업 무기력에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beta = -.28$, $p < .01$, 2차 $\beta = -.36$, $p < .01$, 3차 β

$= -.33$, $p < .01$, 4차 $\beta = -.32$, $p < .01$, 5차 $\beta = -.32$, $p < .01$, 6차 $\beta = -.24$, $p < .01$).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시점에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은 학업 무기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와 더불어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동시효과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은 학업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표 4.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에 대한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동시효과

	경로		B	SE	t	β
중1(1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50**	.01	-37.75	-.55**
중2(2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37**	.01	-26.77	-.39**
중3(3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34**	.01	-24.08	-.37**
고1(4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33**	.02	-21.65	-.34**
고2(5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20**	.02	-12.45	-.20**
고3(6차)	학업열의 → 학업 무기력		-.22**	.02	-11.92	-.22**
중1(1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32**	.02	-19.39	-.28**
중2(2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40**	.01	-29.54	-.36**
중3(3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41**	.02	-27.06	-.33**
고1(4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37**	.02	-24.11	-.32**
고2(5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38**	.02	-24.02	-.32**
고3(6차)	또래애착 → 학업 무기력		-.28**	.02	-13.61	-.24**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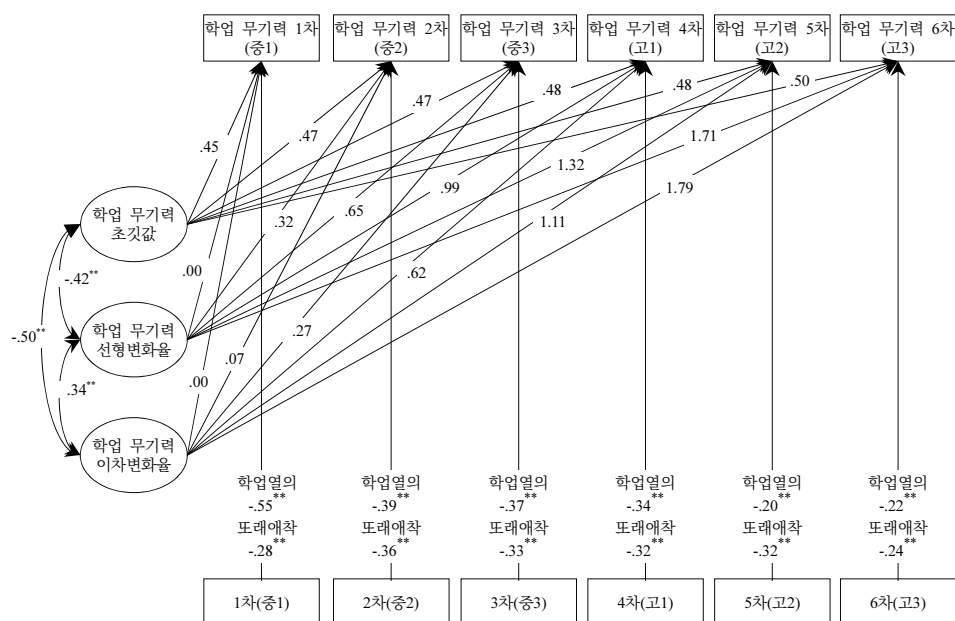


그림 3.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와 학업열의, 또래애착의 동시효과

감소하였으며,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과 더불어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청소년들의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차함수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무기력은 중학교 시기부터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교과 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학업 무기력이 높아지지만 고등학교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학업 환경에 적응하고 대학 진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본다(박지현, 유지영, 변외진, 허무녕, 2024; 박혜성, 김성연, 2024; 정혜원, 장은아, 2023). 본 연구 결과는 학업 무기력이 중학교 시기에 종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들(노연경 등, 2022; 정은혜, 김현주, 손은령, 2021; 하아영, 조한익, 2021),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학업 무기력의 발달은 이차함수모형이 적합하다는 연구(권현주, 2023)와 관련된다.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에서 초깃값과 선형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의 선형기울기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은 유의하며 정적으로 증가하는 선형변화율이 적합하지만, 초깃값과 변화율이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관련된다(권미나, 이진숙, 2022).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과 이차변화율의 상관도 부적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권현주, 2023)와 관련된다. 본 연

구 결과 학업 무기력의 선형변화율과 이차변화율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나 학업 무기력의 선형변화율이 증가할수록 학업 무기력의 이차변화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권현주(2023)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서 순간변화율과 이차변화율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분산-공분산 행렬의 음분산 문제로 인해서 이차요인의 분산을 0으로 제약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을 때 음분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형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이차변화율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초깃값,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 모두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 무기력 발달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마다 학업 무기력의 초기 수준과 변화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병기 등, 2015;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대한 학업열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점까지 학업열의는 학업 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지수, 최은재, 이주미, 2024; 윤희정, 2023; 장은아, 정혜원, 2023)를 지지하며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의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학업열의는 단순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이 학업에서 주도적으로 몰입하고 학습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상태로(이자영, 이상민, 2012; Schaufeli et al., 2002), 이러한 특성이 학업 무기력의 주요 요인인 긍정정서, 능동수행, 통제신념, 학업동기 결여와 반대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학업 무기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다(박병기 등, 2015).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중학교 시기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환경과 교과 내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높아진다(이은주, 2024;

장윤옥, 정서린, 2017). 하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열의에 의해 동기화되었던 내재동기보다는 대학진학과 입시에 대한 압박 등의 외재동기에 의해 동기화되면서 학업열의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본 연구 결과 중학교 시기의 학업열의가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무기력이 누적되고 고착화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이명진, 봉미미, 2013) 학업열의의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에서는 중학교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내재동기와 학업열의를 높이고(Freeman et al., 2014; Reeve & Cheon, 2021),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 및 탐구를 지지하는 수업을 통해 학업 무기력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Fredricks et al., 2004).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서도 학업열의가 약해지고 입시 부담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학업열의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래애착이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래애착은 학업 무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학업 무기력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와 관련된다(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박지현 등, 2024; 박혜성, 김성연, 2024; 정문주 등, 2016). 청소년기 학생들은 또래와의 단순한 사회적 소통을 넘어서 학업이라는 공통의 스트레스를 또래와 함께 공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학업적 어려움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자신의 성적이나 학업 과정에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다(김은라, 박재국, 최영민, 전해영, 2018; 하정희, 장유진, 2011).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래애착이 학업 무기력을 낮추는데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에 대

한 또래애착의 영향은 높아지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초기까지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또래와 비교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증가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진학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또래애착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아름, 최보영, 이지희, 2010; 이자형, 2015).

본 연구 결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업 무기력에 대한 또래애착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협동학습과 또래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을 통한 비교와 경쟁보다는 학업 과정에서의 협력과 공감 중심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Fredricks et al., 2004; Hendar, 2023; Wentzel, Battle, Russell, & Looney, 2010).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학업 무기력에 대한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또래, 교사, 가족의 관계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입시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생들의 적성과 관련하여 진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고 또래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교사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학업 무기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박혜진, 이창식, 202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첫째, 청소년 시기 학업 무기력의 발달을 다룬 종단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중학교 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발달양상을 포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업 무기력의 전반적인 발달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

과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이차함수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에는 학업 무기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학교 1학년 시점인 2018년은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던 시기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기부터 성취평가 기반의 수업 및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학기의 비교적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이후, 2학기에 갑작스럽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체감하면서 학업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로 전환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학기 이후 학생들이 교과 학습 및 평가 상황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뿐만 아니라, 학습 초기 단계에서 평가 중심의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 실패 경험에 반복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학생의 학업 정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기목표부터 장기목표까지 스스로 설정하며 학습에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박병기 등, 2015). 이러한 개입은 학업 무기력의 심화를 예방하고,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미 부여와 가치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업 무기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학업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은 학업 무기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를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업 무기력 완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은 학생의 몰입과 헌신을 유도함으로써 학업열의를 증진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무기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자영, 이상민, 2012; Freeman et al., 2014). 긍정적인 또래애착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문은식, 2015;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배현민, 배천웅, 2018).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 학생들의 학업 무기력의 발달 양상과 학업열의, 또래애착의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기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무기력의 발달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열의와 또래애착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 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기력의 종단적 변화에서 초깃값, 일차변화율, 이차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단적 변화에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변화에서 이질적인 집단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미나, 이진숙 (202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청소년학연구*, 29(5), 87-108.
<https://doi.org/10.21509/KJYS.2022.05.29.5.87>
- 권현주 (2023). 중학생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4). 청소년의 진로준비활동과 학업열의 및 학업무기력 간 관계: 학업성적에 따른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67, 107-141.
<https://doi.org/10.20993/jSSW.67.5>
- 김아름, 최보영, 이지희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성별 및 부모·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 김은라, 박재국, 최영민, 전해영 (2018).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8(1), 427-446.
<https://doi.org/10.21024/pnuedi.28.1.201803.427>
- 김은영, 임신일 (2023). 중·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발달궤

- 적 및 학년별 영향요인 분석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3(4), 83-109.
<https://doi.org/10.34226/gcl.2023.13.4.83>
- 김은예, 한수연, 박용한 (2023). 우울, 친구관계, 학업 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4(4), 193-216.
<https://doi.org/10.14816/sky.2023.34.4.193>
- 김정아 (2023). 청소년의 학업정서 양극화 현상 연구: 학업 열의와 학업 무기력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1(5), 163-192.
<https://doi.org/10.30916/KERA.61.5.163>
- 김지혜 (202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그릿과 우울을 매개로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과실천*, 8(2), 45-78.
<https://doi.org/45-78.10.37342/swpp.2022.8.2.45>
- 김진철 (2023).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 그릿,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매개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7), 47-60.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7.47>
- 노연경, 송주연, 우연경 (2022).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 검증: 1-3학년 간의 변화. *한국교육학연구*, 28(1), 67-90.
<https://doi.org/10.29318/KER.28.1.3>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https://doi.org/10.15284/kjhd.2015.22.1.21>
- 박병기, 노시연,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무기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아동교육*, 24(4), 5-29.
<https://doi.org/10.17643/KJCE.2015.24.4.01>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 37(2), 72-101.
<https://doi.org/10.15709/hswr.2017.37.2.72>
- 박성옥, 신귀순, 고영숙 (2004). 또래환경 및 또래관계의 질이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10, 29-40.
- 박지현 (2022).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정서와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3), 567-583.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3.567>
- 박지현, 유지영, 변외진, 허무녕 (2024).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잠재집단에 따른 진로적응력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3), 185-200.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3.185>
- 박혜성, 김성연 (2024).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프로파일 간 인지·심리사회·진로 특성 차이. *열린교육연구*, 32(1), 271-293.
<https://doi.org/10.26898/OPENEDU.2024.32.1.271>
- 박혜진, 이창식 (2023).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이중매개효과와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산업진흥연구*, 8(2), 81-91.
<https://doi.org/10.21186/IPR.2023.8.2.081>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https://doi.org/10.21509/KJYS.2015.22.5.325>
- 배현민, 배천웅 (2018).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5(1), 79-93.
<https://doi.org/10.22837/JHAD.2018.25.1.004>
- 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문화적 배경과 국가간 비교: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19-348.
- 성경주, 김석범 (202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그릿의 조절효과. *한국융합과학회지*, 13(8), 203-216.
<https://doi.org/10.24826/KSCS.13.8.12>
- 신지수, 최은재, 이주미 (202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무기력 간 관계: 학업열의를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4), 289-316.
<https://doi.org/10.21509/KJYS.2024.04.31.4.289>
-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 여태철, 임효진, 황태향 (2017). 중학생의 자기통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1), 315-341.
<https://doi.org/10.24159/joec.2017.23.1.315>
- 염혜선, 이은주 (2015). 사회적 및 학업적 맥락에서의 유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성취,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2), 185-207.
<https://doi.org/10.17286/KJEP.2015.29.2.02>
- 우연경, 노연경 (2023).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무기력,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30(5), 97-122.
<https://doi.org/10.21509/KJYS.2023.10.30.5.97>
- 유선옥, 박혜영 (2016). 대학-학생 공중 관계, 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PR 연구*, 20(3), 173-200.
<https://doi.org/10.15814/jpr.2016.20.3.173>
- 윤안순 (2024). 그릿이 학업 무기력을 매개로 학업 열의에 미치는 영향: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9), 231-249.
<https://doi.org/10.21509/KJYS.2024.09.31.9.231>
- 윤희정 (2023). 청소년의 우울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 열의의 이중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5(1), 37-49.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시혜, 하문선 (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169-18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169>
- 이은주 (2024). 학습무동기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와 시점별 영향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8(1), 59-85.
<https://doi.org/10.17286/KJEP.2024.38.1.03>
- 이자영, 이상민 (2012). 한국형 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https://doi.org/10.17927/tkjems.2012.24.1.131>
- 이자형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정민, 고은지 (2017). 학업정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1), 111-128.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1.111>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이혜미, 김유미 (2022).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우울, 스마트폰 의존도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203-216.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4.203>
- 임신일, 방상옥 (202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교사애착관계, 학업성취, 학업무기력의 관계: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0(1), 73-93.
<https://doi.org/10.31352/JER.20.1.73>
- 장윤옥, 정서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 195-223.
<https://doi.org/10.25152/ser.2017.65.1.195>
- 장은아, 정혜원 (2023).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 탐색: 랜덤포레스트와 SHAP 적용. *교육학연구*, 61(1), 31-63.
<https://doi.org/10.30916/KERA.61.1.31>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https://doi.org/10.21509/KJYS.2020.08.27.8.329>
-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 정세빈, 정혜원 (202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419-435.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8.419>
- 정옥신, 이재용 (2017). 중학생의 또래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역동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상담학연구*, 18(4), 317-341.
<https://doi.org/10.15703/kjc.18.4.201708.317>
- 정은혜, 김현주, 손은령 (2021). 부모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학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8), 67-85.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8.67>
- 정혜원, 장은아 (2023). 청소년의 그릿 및 학업무기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24(1), 75-107.
<https://doi.org/10.15753/aje.2023.3.24.1.75>
- 최정, 현은민 (2018). 인간관계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긍정정서의 효과-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8(3), 130-152.
<https://doi.org/10.34138/KJTE.2018.18.3.152>
- 하아영, 조한익 (2021).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한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 잠재집단 분류와 전이 영향요인 분석. *중등교육연구*, 69(3), 299-330.
- 하정희, 장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 한세영, 최혜선, 모인경, 손은혜 (2024). 청소년의 주의집중 문제가 또래관계를 통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1(2), 159-170.
<https://doi.org/10.15284/kjhd.2024.31.2.159>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https://doi.org/10.1037/0021-843X.87.1.49>
- Akca, F.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1), 101-111.
<https://doi.org/10.2224/sbp.2011.39.1.101>
- Barber, B. K., & Olsen, J. A. (2004). Assessing the transitions to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1), 3-30.
<https://doi.org/10.1177/0743558403258113>
- Bukowski, W. M., Motzoi, C., & Meyer, F. (2009). Friendship as process, function, and outcome.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 217-231). New York: Guilford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https://doi.org/10.3102/00346543074001059>
- Freeman, S., Eddy, S. L., McDonough, M., Smith, M. K., Okoroafor, N., Jordt, H., & Wenderoth, M. P. (2014). Active learning increases student performance in science, engineering, and mathemat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23), 8410-8415.
<https://doi.org/10.1073/pnas.1319030111>
- Gazelle, H., & Druhen, M. J. (2009).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predict social helplessness, upset affect, and vagal regulation in response to behavioral rejection by a friend.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1077-1096.
<https://doi.org/10.1037/a0016165>
- Ghasemi, F., & Karimi, M. N. (2021). Learned helplessness in public middle schools: The effects of an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motivational strategies. *Middle School Journal*, 52(4), 23-32.
<https://doi.org/10.1080/00940771.2021.1948297>
- Grimm, K. J., Ram, N., & Estabrook, R. (2016). *Growth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es*. NY: Guilford Press.
- Hancock, G. R., & Mueller, R. O. (2006).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cond course*.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Hendar, K. (2023). Peer counseling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academic stress and burnout. *Bulleti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3), 323-330.
-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Nurmi, J. E., Aunola, K., Salmela-Aro, K., & Lindroos, M. (2003). The role of success expectation and task-avoidance in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Three studies on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correlat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8(1), 59-90.
[https://doi.org/10.1016/S0361-476X\(02\)00014-0](https://doi.org/10.1016/S0361-476X(02)00014-0)
- Pincus, A. L., & Ansell, E. B. (2013). Interpersonal theory of personality. In H. Tennen, J. Suls,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141-159). NJ: John Wiley & Sons.
- Raufelder, D., & Kulakow, S. (2021). The role of the learning environment in adolescents' motivational development. *Motivation and Emotion*, 45(3), 299-311.
<https://doi.org/10.1007/s11031-021-09879-1>
- Reeve, J., & Cheon, S. H. (2021). Autonomy-supportive teaching: Its malleability, benefits, and potential to improve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ist*, 56(1), 54-77.
<https://doi.org/10.1080/00461520.2020.1862657>
- Ryan, A. M. (2001).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2(4), 1135-1150.
<https://doi.org/10.1111/1467-8624.00338>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https://doi.org/10.1023/A:1015630930326>
- Shell, M. D., Gazelle, H., & Faldowski, R. A. (2014). Anxious solitude and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5), 1569-1583.
<https://doi.org/10.1037/a0035528>
- Song, J., Bong, M., Lee, K., & Kim, S. I. (2015).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3), 821-841.
<https://doi.org/10.1037/edu0000016>
- Stoeber, J., Childs, J. H., Hayward, J. A., & Feast, A. R. (2011). Passion and motivation for studying: Predicting academic engagement and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1(4), 513-528.
<https://doi.org/10.1080/01443410.2011.570251>
- Wang, J., & Wang, X. (202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 using Mplus*. New York: Wiley.
- Wang, M. T., & Eccles, J. S. (2012). Adolescent behavioral, emotional, and cognitive engagement trajectories in school and their differential relations to educational succes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1), 31-39.
<https://doi.org/10.1111/j.1532-7795.2011.00753.x>
- Wentzel, K. R., Battle, A., Russell, S. L., & Looney, L. B. (2010). Social supports from teachers and peers as predictors of academic and social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3), 193-202.
<https://doi.org/10.1016/j.cedpsych.2010.03.002>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지 ‘인간 발달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인간발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인간발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4 조 (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 (심의) 한국인간발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한다.

제 7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규정

제 10 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14 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15 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①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 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17 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연구에서 속이기)

-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

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 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19 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 20 조 (연구결과 보고)

-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21 조 (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 22 조 (출판 업적)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 23 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4 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26 조 (서약서 제출)

- ① 투고자는 투고시 연구윤리 전반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한다.
- ② 투고시 제출한 연구자윤리서약서는 투고자가 제출한 연구자윤리서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이후 폐기)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27 조 (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 28 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④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9 조 (연구윤리 검증 대상)

- ① 연구윤리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 중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과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연구물을 원칙으로 한다.

제 30조 (연구윤리 검증 절차)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전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에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 ②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31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한국인간발달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전자우편 등 문서기록물의 형태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32 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피조사자에게 제보접수사실과 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검증 절차에 대해 고지하고, 제보자에게 연구윤리 검증 절차에 대해 고지한다.
- ③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단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하지 않은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3 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 규정위반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제보자의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본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윤리 규정위반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5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36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피, 제척, 회피)

- ① 다음 각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당해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해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37 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38 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③ 학회장이 본조사결과를 확정 후, 위원회는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④ 예비조사 착수일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9 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본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학회장의 확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재심의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60일 이내에 종료한다.
- ③ 재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안건에 대한 더 이상의 재심의요청은 할 수 없다.

제 40 조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 41 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
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